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일본편  
(13)도쿄 산토리홀



지난 1986년 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전용홀로 개관한 도쿄 산토리홀의 대극장 전경. 무대를 건물 중앙에 배치하고 2006개의 객석을 16개의 블록으로 나눈 포도밭 모양의 독특한 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향을 선사하는 공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토리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갈라콘서트.



<도쿄산토리홀 제공> 미국의 카네기홀과 국제협력사업으로 펼쳐고 있는 '카네기키즈'.

# 魔性の 음향...카라얀도 극찬한 '소리의 보석상자'

도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 3월19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베레인(Musikverein) 황금홀에서는 매우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다름 아닌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 필하모닉)의 올 시즌 5번째 정기연주회였다.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세계 3대 교향악단으로 통하는 빈 필하모닉의 명성을 말해줄듯 공연장은 유럽 각지에서 온 관객들로 예의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지휘대에 오른 마에스트로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A단조 KV488 아다지오를 레퍼토리에 끼어 넣어 청중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 빈 필하모닉이 모짜르트의 아다지오를 연주한 이유는 공연 일주일전(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빈 필하모닉에게 있어 이날 연주회는 의례적인 '예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매년 가을 '빈 필하모닉 일본주간'(Wiener Philharmoniker Week in Japan)의 공연을 위

해 도쿄를 찾는 그들로서는 멀리서나마 시름에 잠긴 일본인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빈 필하모닉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일본을 찾는 이유는 '순전히' 산토리홀 때문이다. 지난 1986년 산토리홀 개관 기념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선 빈 필하모닉은 뛰어난 음향에 매료돼 '산토리홀'을 자처하고 나섰다. 산토리홀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빈 필하모닉은 1987년부터 매년 10월 '빈 필하모닉 주간'을 열고 일본투어의 전용홀로 애용하고 있다.

산토리홀의 매력에 빠진 오케스트라는 빈 필하모닉만이 아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필하모닉은 물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클라우디오 아바도, 마리스 안손스, 세이지 오자와, 주빈 메타 등 세기의 마에스트로들이 산토리홀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경험했다.

산토리홀이 이들을 사로잡은 건 세계 최고의 음향과 포도밭 배열(wineyard configuration)의 독특한 구조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산토리홀은 위스키 제조업체인 산토리사가 메세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창립

2006개 객석 포도밭 배열·5898개 파이프오르간 깊은 울림  
세기의 마에스트로들 매료...年 550회 콘서트 50만 관객 방문

60주년을 지난 1986년 10월 개관한 클래식 전용공연장이다. 산토리는 도쿄를 '아시아의 비엔나'로 만들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향을 선사하는 음악홀을 목표로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산토리의 열정에 감명받은 카라얀은 베를린 필하모닉을 설게한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을 소개해 일본에선 처음으로 포도밭 모양의 객석을 꾸몄다.

샤론의 설계안은 무대를 건물 중앙에 배치하고 2006개의 객석을 16개의 블록으로 나눈 구조로 '구두 상자'(shoe box)모양의 장방형 콘서트홀에 익숙해 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포도밭 구조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소리를 골고루 뿜어주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소리의 차

이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카라얀은 10여년 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공연장을 보고 '소리의 보석상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산토리홀 대극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다. 중앙 무대 뒤쪽에 자리한 총 5898개의 파이프 오르간과 74개의 스톱(음색조절장치)은 안향 시간(울린 소리가 멈추는 시간) 2.3초의 풍부하면서도 안정된 소리의 울림을 자아낸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악기라는 찬사를 받는 산토리홀은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연주회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연간 550여회의 콘서트와 5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갈 정도다.

그렇다고 산토리홀은 '음악'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소극장인 블루로즈(Blue rose)를 무대로 국내의 솔리스트의 콘서트 뿐 아니라 갈라콘서트, 실내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음악인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국 카네기홀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카네기 키즈'(CarnegieKids)와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워크숍'은 대표적인 예다. 두 공연장은 지난 2006년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3~6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45분간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워크숍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산토리홀은 클래식 전용홀답게 유망한 음악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일본의 음악학도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레인보우 21 산토리홀 데뷔콘서트'와 외국 학생들을 산토리홀에 선보이는 '레인보우 21 인터내셔널'은 다른 공연장에선 찾아보기 힘든 콘서트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으로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전 과정을 공개해 세계 최고의 음악 탄생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산토리에서 음악하자' 등이 유명하다. 또한 일반인 대상 '백스테이지 견학 프로그램'과 평일 오전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 산토리홀을 하루 종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등을 내놓을 수 있다.

산토리홀의 마사코 미즈구치(Masako Mizoguchi) 홍보팀장은 "산토리홀이 개관하기 전까지 도쿄 시민들은 세계수준의 클래식 공연장이 없어 유명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갈증을 느꼈다"면서 "이제 산토리홀은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음악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구심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현지섭의도움=일본정부관광국(JNTO))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 했습니다.



함께 걷자, 가을 속으로

##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청명한 햇살,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강길, 들길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올해 2개의 명품 걷기코스를 선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낭만을 챙겨 가지기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 무료!  
- 선착순 1,000명!

**영산강길 걷기대회**

일시: 2011년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나주영산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

**담양수목길 걷기대회**

일시: 2011년 10월 22일(토) 오후 1시  
장소: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NA JU 나주시 담양군  
주관 |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영산강 새물결맞이 죽산보 축제한마당**

일시 | 2011년 10월 8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230-4 죽산보  
\*왕건호취항식, 황포돛배체험, 축하공연